

■ 민주 개혁특위 '공천 개혁안' 쟁점 살펴보니

#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첨예대립 국민참여 흥행 vs 금품·동원 폐해

민주당 개혁특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 개혁안을 확정짓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혁특위의 공천개혁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의결 및 인준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바지에 이른 민주당 개혁특위의 공천 개혁안을 조망해 본다.

◇경선 방식=개혁특위의 1안은 '완전국민경선'이며 정책토론회를 3회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확인이 가능하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안으로는 '완전국민경선 3분의 2+배심원단 3분의 1'의 절충형을 제시하고 있다. 3회의 토론회에서 20명의 배심원단(토론회마다 교체)이 점수를 매겨 전체 경선 결과에 30%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개혁특위는 전체 경선에 배심원단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20~30명의 지역구 경선에만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민주당 안팎에서는 개

개혁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이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동원 및 금품 경선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배심원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폐해가 확인된 바 있는데다 적용 지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반면,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정당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완전국민경선제는 지역 유권자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점에서 동원 및 금품 제공에 한계가 있고 슈퍼스타 K 방식의 배심원제도 적재적소에 적용한다면 흥행과 함께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심위 심사=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제한과 관련, 공심위(공직후보자선출심사위원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개혁특위는 공심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 지역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평가지수를 개발, 일정 평가 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선 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특위는 객관적인 평가지수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공심위의 역할'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배제와 관련, "중이 제머리를 깎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개혁특위에서는 공심위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의 비율을 50%로 하자는 방안과 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하고 슈퍼스타 K 방식의 배심원제도 적재적소에 적용한다면 흥행과 함께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환영합니다, 평창으로 오세요

강원도 평창이 3차례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7일 평창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평창군청 앞에서 태극기와 동계올림픽 깃발을 흔들며 전세계인들에게 "환영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강원일보=김명섭 기자 msiron@

# '불량' 전남도의회, 의정비가 아깝다

자리 다툼에 열 올리고 뇌물사건 연루 등 '꼴불견'

예결산 심사땀 수시로 이탈·불참... 감시기능 상실

전남도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전년도 예산이 올바로 쓰였는지를 심사하는 정례회 회기 중 자리를 수시로 비우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데,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국회 반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남도의회는 7일 제 261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날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 절반 이상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리

를 비우거나 하면, 아예 상임위원회 참석조차 하지 않아 딱딱한 채 진행됐다.

기획사회위원회의 경우 이날 오후 진행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한 때 11명의 의원 중 3명만이 참석한 채 회의를 진행했고 그나마 일부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와 빈축을 샀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10명의 의원들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자리를 비운 채 관광문화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위원회도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자리를 비운 채 해양수산국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를 받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정부 부처 예산안에 '양식업 조성 프로젝트(240억)'나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720억)' 등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교육

의원들을 중심으로 할당 요구가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고, 전 여수시장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된 4명의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을 맞았지만 도의원들은 무더기로 회의에 불참하고 자리 다툼에만 열을 올리며 뇌물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贊 공천개혁안 反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

박주선 최고위원

“슈퍼스타K 신인 장벽 낮춘다”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제 부정”

천정배 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총선 공천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정당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도 참여하고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동원 경선 우려에 대해서 천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경선에서) 동원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차라리 여론조사가 적합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지 적절한 경선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슈퍼스타 K 방식의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의 약점(조직 선거)을 보완하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배심원제는 적용 기준과 원칙이 엄격하게 마련된다는 점에서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특위의 공천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박 최고위원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당원들과 일반 유권자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당제를 부정하는 경선 방법”이라며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슈퍼스타 K 방식의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당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의 내용 수정 가능성에 대해 박 “잘못된 경선 제도를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국민참여경선 방안 도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F1경기장 인수' 고의누락 의혹

전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서 공사채 발행을 통한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경주장 인수 방식을 담은 내용만 제외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최경석(장흥 1·무) 의원은 7일 제 261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경주장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법은 이사회 회의록과 내·외부 감사결과, 다른 법인 출

자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도, 지난달 열린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성실 공시'라는 것이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영산호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 공사채(40억) 발행계획안' 등 지난달 17일 열린 이사회 의결 사항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도, 절차 같은날 의결된 'F1 경주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이걸로 행가래 받을날은 언제냐?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

심리번호 2112073